

축구·배구

6

2019년 11월 7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1라운드에서 3승3패로 선전한 현대캐피탈의 선전은 외국인선수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 사진제공 | KOVO

외인선수 없이도 3승1패 여전히 강한 현대캐피탈

새 외인 후보 2명 압축...2R 내 확정



다펜딩 챔피언의 저력이 살아나고 있다. 빼어난 외국인 선수 공백 속에서도 현대캐피탈은 거뜬히 승리를 사냥 중이다.

개막 직후 남자프로배구 현대캐피탈에겐 약자가 몰아쳤다. 충격의 2연패와 함께 요스바니 에르난데스가 발목 골절상을 입어 시즌 아웃이 결정됐다. 하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이후 4경기서 주포 역할을 맡아줄 외국인 선수 없이 3승1패를 거뒀다. 특히 1라운드 마지막 두 경기에서 2연승으로 분위기를 띄우며 5위(승점 8)로 마쳤다.

특히 상승세에 있는 팀들의 기세를 곧잘 꺾었다. 1일에는 3연승을 달리던 삼성화재를 풀세트 접전 끝에 제압했다. 세트스코어 0-2로 끌려갔지만 전광인의 트리플 크라운 활약을 앞세워 승부를 뒤집었다. 5일에는 창단 처음으로 1라운드 6경기 전승에 도전하는 OK저축은행에게 3-0 셋아웃 승리를 거두고 돌풍을 잠재웠다. 똑같이 외국인 선수 없이 경기를 치른 삼성화재, OK저축은행과 비교하면 국내 공격진의 힘이 압도적이었다.

현대캐피탈이 꾸린 코트 위 6명의 조합은 외국인 선수 없이도 뛰어난 경쟁력을 지녔다. 팀 공격의 중추인 문성민(115점)과 전광인(106점)이 개인 득점 6, 7위로 버티고 선 까닭이다. 공격 성공률 역시 전광인이 52.44%, 문성민이 49.49%로 빼어나다. 여기에 리그 최정상급 센터진도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블로킹과 속공 모두에 두루 능한 신영석, 최민호가 전위를 지키면서 여느 팀 날개 공격수 못지않은 공격, 수비 기여도를 자랑하는 중이다.

다펜딩 챔피언의 뼈대를 지킨 현대캐피탈은 높은 곳을 바라본다. 곧 팀에 새로운 동력이 가세할 예정이다. 에르난데스의 수술과 함께 재빨리 대체 외국인 선수를 알아본 최태웅 현대캐피탈 감독은 영입 후보를 2명으로 압축했다. 이 중 한 명을 2라운드 내로 팀에 합류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조용히 '반전'을 준비하는 현대캐피탈이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유럽 챔피언스리그서 강한 인상 남긴 황희찬·이강인

쿨리발리 완벽하게 속인 ‘영리한 황소’

〈세계적 수비수〉

〈황희찬 별명〉



잘츠부르크 황희찬(왼쪽)이 6일(한국시간) 2019~2020 UCL 조별리그 E조 4차전 나폴리(이탈리아) 원정에서 세계적인 수비수 칼리두 쿨리발리에 마크를 피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황희찬은 전반 10분 쿨리발리에게 거친 태클을 당하며 선제골로 연결된 페널티킥을 유도하는 등 풀타임 활약했다. 나폴리(이탈리아) | AP뉴시스

황희찬, 나폴리전 풀타임...PK 유도
이강인은 UCL 첫 선발 54분간 활약
11월 A매치 2연전 앞둔 벤투호 호재



레바논과의 2022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원정(14일·베이루트), 브라질 평가전(19일·아부다비)으로 이어질 11월 A매치 시리즈를 앞두고 유럽무대를 누비는 태극전사들이 힘을 내고 있다.

‘황소’ 황희찬(23·잘츠부르크)과 ‘신상’ 이강인(18·발렌시아CF)이 6일(한국시간) 열린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4차전에서 나란히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황희찬은 나폴리와 대외 조별리그 E조 원정 4차전에 풀타임을 소화하며 전반 10분 팀의 첫 골로 이어진 페널티킥(PK) 찬스를 유도했다. 상대 문전을 빠르게 돌파하려다 나폴리의 세계적인 수비수 칼리두 쿨리발리에게 거친 태클을 당했다. 앞선 UCL 리버풀 원정에서도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명성을 떨치는 버질 판 다이크를 완벽하게 제쳐 득점포를 가동한 황희찬은 이날 쿨리발리가 예상한 방향을 완전히 속이는 완벽한 움직임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승수를 쌓지 못했다. 황희찬이 선물한 PK를 스트라이커 홀란드가 차넣어 리드를 잡은 잘츠부르크는 전반 43분 이르빙 로사노에게 동점골을 헌납해 1-1로 아쉽게 비겼다.



이강인

폭풍 성장하고 있는 이강인도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안방에서 열린 팀과의 대회 조별리그 H조 홈 4차전에 오른쪽 날개로 출전했다. 생애 첫 UCL 선발. 앞서 이강인은 세 차례 UCL 경기에 나섰으나 모두 교체 투입이었다.

이강인은 변독이지 않았으나 무난했다. 공수 연결고리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전반 35분 헤딩 슈트, 2분 뒤에도 상대 수비를 맞고 나오는 과감한 슈트로 홈팬들의 감재를 받았다. 전반 25분 선제골을 허용한 발렌시아는 후반 9분 이강인을 빼며 대반전에 성공했다. 이후 4골을 몰아치면서 역전했다.

중요한 A매치 2연전을 앞둔 국가대표팀 공격 콤비의 활약은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에게도 큰 힘이 된다. 여러 포지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 옵션이 최적의 몸 상태를 보여야 선수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다. 특히 ‘캡틴’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이 처한 불편한 상황까지 맞물려 공격 2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베트남 돌풍’ 정해성 감독 “내년엔 우승컵 거머쥘 것”

호치민시티 부임 1년만에 준우승
구단과 내년부터 ‘2+1년’ 재계약
“내년 4개 대회 중 하나는 꼭 우승”

2017년 10월 베트남으로 향한 정해성 감독(61)은 “도전!”을 외쳤다. “축구는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다 똑 같다”며 의욕을 불태운 그는 처음 1년간 호앙아인질라이(HA GL)의 기술위원장 겸 총감독을 맡았다가 지난해 말 호치민시티FC 사령탑에 올랐다. 호치민에서 정 감독의 지도력은 빛이 났다. 2017~2018년 연속으로 베트남프로축구 V리그 14팀 중 12위의 하위권에 머물던 팀을 올 시즌 단박에 2위로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한 것이다. 엄청난 돌풍 덕분에 준우승을 하고도 ‘V리그 올해의 감독’에 선정됐다. 또 내년부터 2022년까지 ‘2+1년’ 재계약을 맺었다. 스포츠동아와 전화 인터뷰에서 정 감독은 “선수와 스태프, 구단 모두 하나가 되어 2019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만족해했다.

올 시즌 호치민시티 성과의 원동력은, “팀에 늦게 합류하면서 선수 구성이 95% 정리가 된 상황에서 시작했다. 우선 구단을 비롯해 선수, 스태프 모두 하나가 된 ‘원팀’을 강조하면서 프로다운 팀을 만들자는 데 의기투합했다. 선수들이 힘든 훈련을 잘 이겨내 줘 고맙게 생각한다. 생활과 훈련도 하나하나 진정한 프로답게 변해갔다.”
-호치민시티와 재계약을 했는데.
“시즌 종료 전에 회장님께서 구두로 ‘격정하지 말고 3년은 같이 했으면 한다’고 언질을 하셨는데, 시즌을 마치고 마무리가 됐다. 내년에는 더 힘든 시즌을 하게 되는 상황에 선수보강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렸다. 구단 사정이 어려워 쉽지 않다는 답을 들어 잠시 고민했다. 그 사이 V리그 몇몇 팀에서 제의를 해오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우선은 호치민’이라고 정중하게 거절했다. 시즌을 마치고 서로 양보하면서 구단과 계약에 합의했다.”
-호치민시티 구단의 특색이 있다면.

“베트남의 하노이와 호치민은 대도시이자 라이벌로서 V리그 흥행을 주도할 수 있

는 팀이지만 지금까지 호치민이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해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올 시즌도 1무1패로 열세였다. 하지만 호치민팬들을 충분히 흥분시킬 만큼의 결과와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올 시즌 V리그 우승팀은 하노이이다. 당연히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플레이오프 출전권을 가진다. 하지만 하노이는 15세 이하 유스 대회 출전 등 AFC 클럽 등록 규정 위반으로 출전권이 박탈됐다. 이에 2위 호치민시티가 출전권을 넘겨받았다. 정 감독은 “쉽지는 않겠지만 베트남의 클럽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베트남이나 동남아국가로 진출을 꿈꾸는 지도자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디든 새로운 국가에서 도전을 하려면 쉽지 않다. 지도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정서도 잘 파악해 선수들과 소통을 잘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선수와 스태프 모두 서로 존중하는 것도 꼭 필요한 요소다.”



베트남 프로축구 V리그 올해의 감독으로 선정된 정해성 호치민시티 감독은 6일 스포츠동아와 전화통화에서 “선수와 스태프, 구단 모두 하나가 되어 2019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뿌듯함을 드러냈다. 사진제공 | 정해성 감독

-내년 시즌 목표가 있다면.

“내년 시즌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V리그와 ACL, 내셔널컵, 클럽챔피언십 등 4개 대회를 소화해야 한다.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클 것에 대비해 선수보강에 신경을 쓸 것이다. 4개 대회 중 하나는 우승컵을 거머쥘 것이다.”

정 감독은 조만간 스페인으로 건너가 경기 관전을 겸한 휴식을 취한 뒤 12월 초 훈련을 시작한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코레일의 FA컵 결승행이 반가운 대한축구협회

한국형 디비전 목표...K3·K4 출범
프로구단 건실업팀 경쟁력에 주목



‘2019 KEB하나은행 FA컵 결승’ 대진이 K리그1 수원 삼성과 실업축구 내셔널리그 소속의 대전 코레일로 결정되자 많은 축구인들이 우려했다. 홈 평균관중(리그 기준) 8000여 명을 유지한 수원은 두터운 팬 층

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코레일은 그렇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프로·아마추어 최강자를 가리는 이 대회를 주관하는 대한축구협회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 오히려 하부리그의 한축을 담당할 코레일의 저력과 경쟁력을 주목했다.

2019년도 협회가 추진하는 핵심 과제 중 하나가 ‘한국형 디비전 시스템’ 구축이다. 올 3월 아마추어 5·6·7부 리그에 해당하는 K5·K6·K7을 출범시킨 협회는 내년 K3·

K4를 정착시켜 기존의 프로리그인 K리그1·2와 연계한 유기적인 시스템을 완성하려 한다. 프로부터 아마추어, 풀뿌리까지 협회가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의지다.

이 과정에서 내셔널리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협회는 9월 말까지 실업 8개 팀과 아마추어 K3리그 20개 팀 등을 대상으로 K3·K4 참가 신청을 받았다. 참가 기준은 내년 9월 30일까지 클럽 구조를 온전한 ‘독립 법인’으로 전환시킨다는 약속이다.

내년부터 K3에 합류할 코레일은 FA컵 결승행으로 ‘실업’ 자격으로 가장 오래 생존한 팀이 됐다. 그간의 과정도 대단했다. 올

시즌 K리그1 정상에 근접한 울산 현대와 파이널A(1~6위)에 안착한 강원FC, 파이널B에서 저력을 발휘하는 상주 상무를 제압했다.

6일 대전한밭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결승 1차전에서 ‘실업 코레일’을 성원한 홈팬들과 아름답게 이별한 코레일은 1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원정 2차전을 갖는다.

협회 관계자는 “프로에 뒤지지 않는 실력을 코레일이 보여줬다. 디비전 리그에 나설 다른 팀들의 역량도 충분하다는 얘기다. 새로이 정착할 리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대전 | 남창현 기자